

제 161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한일관계 역사문제의 구조변화

강연자: 이즈미 하지메 (시즈오카현립대학 교수)

일본을 대표하는 한국 연구자인 시즈오카현립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세미나가 9월 3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한일관계 역사문제의 구조변화'라는 주제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한일관계가 요즘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고 운을 댄 이즈미 교수는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는 2015년을 한일 양국이 잘 준비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15년 문제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한일관계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즈미 교수는 지나친 낙관주의는 현재 한일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인적으로 당분간 한일관계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90년대 초 한일 갈등은 위안부문제, 교과서 문제 등 역사 문제가 복잡화되던 시기에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론에 대한 걱정도 많이 생겼던 시기였으나, 한국도 민주화되었고, 냉전시기도 끝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보통국가론이 한국에서는 군사력 증가라는 위협으로 해석되어 양국 간에 갈등이 생겼으나, 그 당시 일본은 자신을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소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에서 역사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당시 일본의 외교 방식은 회유책을 사용하는 것이었고, 한국이 일본을 필요로 한다고 여겼다. 경제적인 면에서 등 한국은 일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시 한국은 중요한 존재이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신을 대국이라는 여기는 반면, 한국은 개발도상국, 소국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국이 일본을 비난해도, 한국은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형과 같은 존재인 일본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즈미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생각이 일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대국이지만, 정체된 대국이 되어버렸고, 한국은 더 이상 소국이 아니라, 작지만 대국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일본은 정체되어 있고, 한국은 발전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지게 되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왜 배려해야 하느냐 하는 식의 의견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 있어서도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지 않게끔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을 평가할 때, 이명박 정권 때 G20 정상회의와 핵 안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국을 동생으로 여기던 시절에는 이러한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국가 원수들이 한국에 모여 성공적인 회의를 개최한 것이 일본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즘에는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인상을 주고 있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이즈미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예전 일본에서는

한국이 변화하고 발전하여 강대국이 되면, 역사문제는 극소화될 것이고, 다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은 잘못된 기대가 아니었으나 하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크게 성장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힘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현재 한일관계의 문제들을 일본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가 지금 행하고 있는 대일 외교 정책도 이러한 텍스트 안에서 해석하면 이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06년 4월 25일, 일본이 역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관계 속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기점으로 한국의 모습도 이전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한국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계승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이즈미 교수는 언급했다. 이 담화에서 한국의 입장은 일본이 역사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고치지 않은 한 한일간 협력을 기대하지 힘들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2015년 문제에 대해서, 50년 전에 성립되었던 한일관계 정상화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불평등한, 문제가 많은 조약이라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왜냐하면 이 한일협정은 그 동안의 보상문제, 징용문제 등을 기본 조약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전시 징용문제를 포함한 당시 한국이 원했던 요구들은 당시 한국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여긴다는 점을 이즈미 교수는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위안부 문제 역시 그 시기에는 일본이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1965년에 이루어졌던 한일협약은 한국의 입장에서 명백한 불평등 조약인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100%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이즈미 교수의 개인적 견해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국이 더 성장하고 여유가 생긴다면, 역사 문제를 한국 스스로가 극소화시켜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젊은 세대로의 교체 역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지 모른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도 아베 정권이 현재 행하고 있는 아베 노믹스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일본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여유가 생긴다면, 한일관계가 지금보다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때가 된다면, 역사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되며 앞으로 2015년까지 2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각오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즈미 교수는 강연을 끝마쳤다.

질의응답..

질문: 오늘 강연에서 북한의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북한과 중국의 문제를 개입해서 생각할 때 한일관계를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답변: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가 가까워지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전에 이 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우선과 제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문제의 해결에 달렸다. 근래 중국이 북한 쪽을 감싸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멀지 않은 시기에 중국은 북한에게 실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중 관계가 나빠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한중 관계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질문:

최근 일본에 심각한 혐한류 움직임이 있다. 한국에선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지만, 향후 일본 내 반한 움직임이나 한국에서 말하는 일본의 보수화 우경화 가능성을 더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신오오쿠보에서 주말마다 한류반대시위가 열리고 있으나, 이는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일부의 주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일본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요즘 한국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일본인들의 질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 전까지 일본사람들은 한국을 질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현상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의 자신 없고, 불만 많은 일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우경화, 보수화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국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기대감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질문:

만약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할 경우, 북한과 국교 가능성이나 교섭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알고 싶다.

답변: 일조관계 이야기 하면, 국교정상화를 주제로 북한과 정상화 교섭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상화 회담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쪽에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일본에서는 북한과 정상화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관심 자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교정상화는 역시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적어도 상대방 국가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상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판단될 때 수교를 맺으려고 할 텐데 일본의 입장에서 북한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득이 없는 상대와 정상화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질문: 아베 정권이 끝나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답변: 아마 한동안, 한 5년 정도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한일협정 50주년인 2015년을 무사히 지나가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